

『交隣須知』를 통한 일본어의 통시적 연구(1)*

—副詞語를 중심으로—

片茂鎮**

(e-mail: mjpyon@dankook.ac.kr)

目次

1. 들어가기
 2. 일본어의 副詞와 副詞化 過程
 3. 연구방법
 4. 『交隣須知』의 副詞語
 - 4-1. 漢字副詞 어휘의 증가
 - 4-2. 副詞語의 意味 分化
 - 4-3. 轉成副詞化
 5. 맺음말
-

1. 들어가기

18세기 초 江戸期에 일본에서의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로 성립된 『交隣須知』는 明治期를 통하여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한국어 학습서이다. 이 『交隣須知』가 한일어의 역사적 연구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은 것은, 성립 당시의 原「交隣須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苗代川本>(19C 前期에 筆写?)을 비롯한 일련의 古写本類는 대략 18세기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고, <小田本>(1795)이나 <서울大本>(1868~1873)과 같은 增補本類는 대략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初刊本(1881년)은 19세기 후반, 그리고 明治37년(1904)에 간

* 본 연구는 2013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행된 校訂本은 20세기 초의 韓日語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苗代川本>을 기준으로 하여 古写本類>增補本類>初刊本>校訂本으로 이어지는 異本들의 언어현상은 양국어의 통시적 연구자료로서 절호의 가치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交隣須知』의 언어를 다루어 왔는데(片茂鎮(2010,2011.2012.2013)), 본고에서는 副詞語의 변화상에 대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자 한다. 특히 근대시기의 부사어에 관한 연구는 대략 明治期の 문헌자료에 나타난 일정 부사나 副詞語類의 사용례를 조사·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¹⁾, 『交隣須知』와 같이 이본들 간에 존재하는 언어사용의 차이점(변화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²⁾.

2. 일본어의 副詞와 副詞化 過程

현대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사들 중에는 이미 上代나 中古에 부사어로 기능한 것도 있지만, 대략 중세기(11세기~16세기)에 그 성립이 인정되는 어휘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浜田1991:200 참조). 그런 가운데 중세 이후의 근세(江戸時代)나 현대(明治 이후)에 와서 비로써 부사로서의 品詞性を 획득한 것들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어의 부사는 고유 부사어를 바탕으로 하면서 주로 用言이 부사화의 과정을 거친 轉成副詞으로써 다양한 修飾的機能을 담당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본래 일본어의 부사는 体言的 性格이 강한 「情態」 부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들로부터 「程度」 부사적, 혹은 「陳述」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부사어로 확산, 재생산되는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徳田1983:66-67 참조), 그 중심에는 주로 용언으로부터 전성되어 程度副詞적으로 사용된 어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어의 부사는 중세시기에 성립된 것들을 주로 하면서 그 후 18세기를 중심으로 한 근세시기에 語彙史的으로 기능 및 의미변화 과정을 거치면서³⁾, 19세기 명치시기 이후 현대어에서는 보다 다양한 부사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松井(1977), 趙宏(2003), 増井(1988) 등.

2) 成玟炯(2010)는 본고의 『交隣須知』를 포함하는 明治期 朝鮮語學習書類에 나타난 情態副詞의 연구로, 明治時代に 발간된 40종의 한국어학습서류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사용례를 조사·고찰하고 있다.

3) 江戸時代 前期에는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의태·의성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사어휘가 나타나며(坂梨1982:493), 『捷解新語』의 경우에도 原刊本の 부사어가 改修本에서 다양화된 형태로 나타나 는 바와 같이, 특히 부사의 변화는 이 시기에 현저했다고 볼 수 있다(安田1973:315).

단, 일본어의 부사는 고유어보다는 다른 품사로부터 전성되어 부사로 기능하는 전성부사가 많다고 할 때⁴⁾, 이와 같은 전성부사와 그 전 단계인 ‘副詞化過程’과 관련하여 그 단어가 활용어의 영역을 벗어나서 부사로 一語化(轉成副詞化) 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가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交隣須知』를 통하여 일본 근세시기의 부사어가 어떤 변화상을 거쳐 현대어에 이르는가 하는 역사적 변천의 一面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일단 부사는 일본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苗代川本>의 색인에서 순수하게 부사로 분류된 어휘를 일차적 대상으로 하였다⁵⁾.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重ねて」와 같이 동사의 連用法이 一語化하여 부사로 전성되어 사용되는 連語(동사+접속조사)도 부사로 취급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동사의 연용법의 경우는 『交隣須知』에서 이미 고루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 「よく」「確かに」처럼 형용사나 형용동사의 연용형이 다음의 용언을 수식하여 부사적으로 기능하는 連用法의 경우는 부사화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관계로, 일단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그것에 해당하는 어휘만을 포함하기로 한다. 그리고 「慇懃に」「隱々と」처럼 통시적 변화 정도가 낮은 순수 漢字語나 漢字 疊語에 조사가 붙어서 사용되는 부사, 그리고 의태·의성어 등도 가능한 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交隣須知』의 부사화 판단에 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苗代川本>의 일본어 단어별 총색인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에 의하여 부사어를 선정하도록 한다.

- (1) 색인에서 부사로 품사 분류된 어휘(예, 「いこう」「いたって」 등)
- (2) 색인에서 부사로 품사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名詞+助詞, 동사의 連用形+「て」의 連語 형태로 부사로 사용되는 어휘(예, 「いたずらに」「重ねて」 등)
- (3) 형용사(형용동사)의 連用形이 다음의 용언을 수식하여 부사적 기능을 하는 용례만 있는 경우.

4) 현대일본어에서 일단 ‘副詞’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다른 종류의 말로부터 轉成, 혹은 몇 개의 단어가 합쳐진 連語 내지 慣用句의인 것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浜田1970:208).

5) 단, 명사의 부사적 용법에 관여하는 때를 나타내는 名詞나 數詞, 「こう, そう」와 같은 지시부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이 (3)의 경우에 있어 조사자의 주관이 상대적으로 개입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형용사 「よい」의 예를 들면, 「よく(よう)」의 형태로 古典語에서부터 부사로 사용된 용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⁶⁾, 부사화의 과정을 거쳐 이미 오래전부터 부사어로 기능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交隣須知』의 <苗代川本>에는 「よく」「よう」와 같은 連用法, 다시 말해서 부사적 용법의 용례 외에도 「よい」「よけれ」「よかろ」와 같은 다양한 활용형의 사용례가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래 형용사라는 語性を 우선하여 부사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용법의 용례가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점 「確かに」처럼 형용동사의 연용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이러한 것들은 활용어의 부사적 용법으로 보고, 부사화의 과정에 있는 것들로서 4-3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4. 『交隣須知』의 副詞語

이와 같은 부사어 선정 기준에 의한 결과, 부록의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 80여 개의 부사어(개별어수)가 추출되었다. 本稿에서는 서로 類義語의 관계에 있는 부사어를 50여개의 어휘 항목으로 재정리하여 부사 변화의 경향성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자료】의 분류는 <苗代川本>의 부사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의 한국어 対訳을 기준으로 유의어별로 재분류. 표기는 가능한 한 원문대로 한다)

4-1. 漢字副詞 어휘의 증가

【자료】에서 보면 부사어는 일단 和語·漢語·俗語類에 속하는 다양한 語種으로 분포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유어(和語)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初刊本 이후, 특히 校訂本에서 한자의 부사어가 증가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交隣須知』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한국어 ‘하, 너모, 미오, 심히(이), ㄷ장, 만히’ 등의 対訳에 해당하는 정도부사들인데, 그 중 初刊本の 「たくさんに, だいいち」, 校訂本の 「始終, 大變, 大層, たくさん, いちばん, 是非」 등이 한자어 부사어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たいへん, たいそう, たくさん」이 있다. 이 「たいそう」「たいへん」과 같은 어휘는 初刊本에는 없고 校訂本에만 나타나는 한자어이다⁷⁾.

6) 이와 같은 副詞化의 판단은 1차적으로 『広辞苑』 『日本国語大事典』(第二版)과 같은 일본어대사전 상의 용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7) 이하 인용문의 <濟>는 濟州本(1880년), <ア>는 ア本(1846), <対>는 対馬本(1855년경 筆写),

[2022]

- <苗/二08a> 紹 돈피 털은 미오 덩스외
キネツミノ ケハ イコフ ヌクウゴサル
- <濟/二02a> 紹 돈피 털은 미오 덩스외
トンビノ 毛ハ イカウ アタ、カニゴサル
- <初/二02a> 紹 돈피 털은 미오 덩스오니
紹ノ 毛ハ イカウ アタ、カニゴザル
- <校訂/072> 貂皮 돈피는 미오 덩스외다
貂皮は 大層 暖かでございます。

[1584]

- <苗/一43b> 妻媧 처남이 미부(妹夫)를 미오 더접(待接)히옵니
ニョフホフノキョ(ウ)タイガ イモフトノ夫 イコウ 트리モチ마스ル
- <ア/一51a> 妻媧 처남이 미부를 미오 더접히옵니
女房ノ兄弟ガ 姉婿ヲ イカウ 트리モチ마스ル
- <初/一40b> 妻男 처남이 미부(妹夫)를 미오 더접(待接)히옵데
女房ノ兄弟ガ 妹婿ヲ ヒドク 트리モチ마스
- <校訂/097> 妻男 처남(妻男)이 미부(妹夫)를 미오 더접(待接)히옵데다
妻の弟ガ 姉婿を 大へん 大事にいたします。

「たいそう」은 江戸後期の 국학자인 平田篤胤의 「古道大意」(1813) 및 그 이후의 문헌에도 사용례가 보이긴 하지만⁸⁾, 당시에는 그다지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⁹⁾. 이 「たいそう」은 다음의 「たいへん」과 더불어 명치20년대 이후에 朝鮮語學習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정도부사이다(성윤아2010:68 참조). 따라서 初刊本에서 「たいそう」나 「たいへん」의 사용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이 당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단지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또한 江戸時代の 写本類에서 대표적인 정도부사로 많이 사용되던 「いこう」(いかし>いかう>いこう)가 校訂本에서 「たいへん, たいそう」로 교체되었다. 이 「いこう」는 명치14년의 初刊本에서 일부 사용례가 보이지만, 그 이후의 조선어학습서에서도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된다¹⁰⁾. 그리고 역시 같은 漢字副詞인 「たく

<ノ>는 서울대본(1868년~1873년), <武>는 武藤本(1873년)의 略称이다.

8) 『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 古道大意·上 「此の世界は大造(タイサウ)広く大きいことで、国も勿論たんと有る」

9) 물론 당시의 부사를 전부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湯沢幸吉郎(1936, 1957)가 江戸時代に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한 부사어를 중심으로 주된 부사의 용례를 수집해 놓은 副詞의 節에도 이와 같은 어휘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徳川時代言語の研究』 『増訂 江戸言葉の研究』 참조).

10) 성윤아(2010)의 조사에 의하면, 명치20년대 발간된 조선어학습서류에는 사용례가 없다.

さん(沢山)」의 경우는 写本類에는 그 예가 없고¹¹⁾, 刊本類 특히 校訂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初刊本에는 1예).

[1033]

- <苗/一03b> 霰 쌀눈이 만히 오니 맞치 쏠이 느려디는 듯호외
 アレガ ヨケイニ フッテ チョフド 米ノフツヤフニゴザル
- <ア/一05a> 霰 쌀눈이 만히 오니 맞치 쌀이 느려지는 듯호외
 アレカ タント フッテ 丁度 米ノ落タヤウニコサル
- <対/一05a> 霰 쌀눈이 만히 오니 맞치 쌀이 느려지는 듯호외
 アレガ ヨケイニ フッテ 丁度 米ノフルヤウニゴサル
- <初/一04a> 霰 쓸락눈이 만이 오니 맞치 쏠이 느려지는 듯호외다
 霰ガ タント フリテ 丁度 米ノフルヤウニゴザリマス
- <校訂/007> 霰 쓰락이눈이 만히 오닛가 맞치 쏠비가 오는 것 긋소
 霰ガ 沢山 降るのが 丁度 米の降るやうてす。

단, 형용동사의 부사형으로 「たくさんに」의 예가 初刊本에 2개 정도 보인다.

[1039]

- <苗/一04a> 著霜 서리가 밭이 치니 나모넛히 누[느]르러 다 썩러디옵니
 シモガ イカフ フッテ 木ノ葉ガ キバミテ ミナ ヲチマスル
- <ア/一05b> 著霜 서리가 밭오 치니 나모넛히 누르러 다 썩러지고니
 シモカ ツヨウ フッテ 木ノ葉ガ キハンテ ミナ ヲツル
- <初/一04b> 著霜 서리가 만이 오니 나무넛히 누르러 다 썩러지[치]겠다
 シモカ 沢山ニ 降りタニヨリ 木ノ葉ガ 黄ミテ 皆 落ちル

결과적으로 『交隣須知』에서의 이와 같은 경향은 明治時代 이후에 어휘와 표기에 있어 漢字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初刊本은 당시의 언어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전 시대의 것을 답습한다는 보수적인 측면도 인정된다. 한편 校訂本은 적극적으로 당시의 언어현실을 반영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 이전의 異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蛇度, 屹度(きつと)」와 같은 当て字가 校訂本에서 사용된 것도 그러한 시대적 반영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4191]

- <苗/四12b> 必 반드시 도흔 일이 이실거시니 가 둔너오나라

11) たいへん(大變) : 명사로서는 太平記、東海道中膝栗毛 등에 「重大なこと」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있다. たいそう(大層) : 명사로서 「はなはだしさま」의 의미로 誹風柳多留 등에 예가 보인다.

		ヒツヂョフ ヨイ コガ アロフニヨリ ユイテコイ
<小/四15a>	必	반드시 도혼 일인가 시브니 가 보소 必定 ヨイ コガ ア라우ニヨリ ユキテ見サシャレイ
<初/四15a>	必	반드시 도혼 일이 잇슬 찌시니 가 덩겨오느라 必 ヨイ コガ ア라우ニヨリ ユイテ코ヨ
<校訂/312>	必	필연(必然) 도혼 일이 잇슬 거시니 가서 덩겨오느라 屹度 いゝ 事があるから 行って 来て見。

4-2. 副詞語의 意味 分化

일본어는 18세기를 중심으로 한 근대시기에 특히 부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交隣須知』는 그러한 언어변화의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주된 내용은 ‘副詞 意味의 分化(細分化)’라고 할 수 있다.

우선 『交隣須知』에서의 부사 의미의 분화는 특히 「あまり」 「いこう」와 같은 정도부사에서 두드러진다(【자료】 No.1). 다시 말해서, 写本類에서 初刊本까지는 미분화 상태의 「あまり」가 校訂本에서 「あまり, たいへん, ひどく, どうも」와 같은 다양한 부사어로 분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いこう」의 경우는 初刊本에서부터 「いこう」를 포함하는 다양한 부사어의 형태로 나타나고, 校訂本에서는 古形の 「いこう」가 없어진 대신에 「たいへん」 「たいそう」와 같은 당시의 일반적인 부사어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浜田敦(1970:222-223 참조)는 朝鮮資料에서의 이와 같은 현상, 특히 정도부사에서 同義, 類義語가 많이 병존하는 언어현상을 「程度遞減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도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자주 사용됨으로 점차 신선함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정도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힘이 감소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同意類義語가 동일한 시기에 공존하게 된다. 『交隣須知』의 예를 들면, <苗代川本>에서 현대어의 「たいへん」에 해당하는 부사어로 「いかう, あまり, いたって, おおいに」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あまり」의 경우는 校訂本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부사어의 경우는 대략 増補本類를 거쳐 初刊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와 같은 정도부사에서의 의미 분화와는 대조적으로, 初刊本에서의 다양한 부사어가 校訂本에서 특정한 부사어로 통합되는 경우도 보인다. 상태부사 「さっそく, じきに, すぐに, つい」 등은 校訂本에서 주로 「すぐ(に)」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물론 『交隣須知』에서의 이와 같은 현상만을 가지고 일본어 부사의 통시적 변화의 한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校訂本에서의 「すぐ(に)」는 물론, 이전의 異本에서 사용된 「さっそく, じき

に, すぐに, つい」등도 현대어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보다 일반적인 어휘의 채용이라는 校訂本에서의 편집 의도의 문제로 생각된다. 또한 정도부사의 경우도 校訂本에서 사용어가 당시 일반적인 몇 개의 부사어로 단순화한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4-3. 轉成副詞化

현대어에서 副詞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은 다른 종류의 단어에서 轉成, 또는 복수 단어의 連語 내지 慣用句적인 것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자료】로 제시된 『交隣須知』의 부사를 보면, 校訂本으로 갈수록 일본어의 부사가 다양화(세분화)되어 가는 통시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품사에서의 전성부사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선 동사의 부사적 용법, 다시 말해서 動詞의 連用形+助詞에 의한 連語는 이미 대부분 부사어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イタッテ, キワメテ, カエッテ, ハジメテ, カエッテ」등과 같은 부사어는 古写本類인 <苗代川本>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다. 또한 <苗代川本>에서 순수한 부사이었던 것이 校訂本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어 내지는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의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カタカナ語는 <苗代川本>에서 사용된 부사)

どこまでも(←イコウ), 絶へず(←ヒタスラ), どうかすると(←モシ), いっそのこと(←イツツ), 立ち入って(←サノミ), つまらぬことに(←イタツラニ), もちよつとで(←ヲヲカタ), いつのまにか(タチマチ), 出来る様に(←ナルダケ), 其儘にして(←ヤハリ), いゝ鹽梅に(←ヒツチャウ) 등

물론 이 중에는 「絶へず」 「いつのまにか」와 같이 이미 부사화 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連用修飾表現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사 어휘의 확대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로는 전술한 한자어의 채용과 더불어 특히 形容詞·形容動詞의 連用法을 들 수 있겠다.

樂に(←スコブル), 靜に(←ソロリト), かすかに(←チラチラト)
ひどく(←アマリ, タント), 少く(←チツト), よく(←トクト)

이러한 형용사·형용동사의 부사적 용법이 初刊本 이후, 특히 校訂本에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중 「よく」등은 이미 고대 문헌에서부터

부사어로 기능하는 용례가 있어 부사화가 완료된 어휘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완료되었거나 혹은 그 과정에 있다는 언어현실을 반영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사화의 과정을 거쳐 현대어에서는 부사로 이행을 마친 것들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交隣須知』에 나타나는 형용사와 형용동사의 연용법에 대하여 대표적인 예를 들어 검토하기로 한다.

(1) 形容詞의 連用法

「うまく」는 校訂本에서만 보이는 형용사의 연용형이다. 다른 사본류에서는 終止形·連体形の 「うまい」의 형태로만 사용되고, 부사적 용법 「うまく」나 音便形인 「うまう」의 사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단, 古写本類의 <文政本>(1827年)에 「うまう」의 사용례가 1예 보일뿐이다.

<文/三48a> 啞 입을 썸라 머그니 ㄹ장 맛나온가
クチ ナメヅリシテクワシャルカ キツウ ウマウゴザル

이와 같은 어휘에 속하는 형용사로 「ひどく」를 들 수 있고, 역시 형용사 「おおきい」의 非音便形 「おおきく」의 형태도 校訂本에서만 보인다. 예를 들면 「ひどく」는 刊行本에만 나온다.

[3445]

<苗/三32b> 結縛 결박하고 밭고 치니 못 견디여 흐읍니
シバッテ キツウ タ、イテ コタエガトウコサリマスル

<ソ/三65b> 結縛 결박하고 가더니 되오 마즌가 시브의
シバッテ ユキマシタニ キツウ タ、カレタソウニゴザル

<武/三61a> 結縛 결박하고 밭고 치니 니러나지 못흐읍니
シバッテ ツヨウ タ、イタニ タチアガリエマセヌ

<初/三45a> 結縛 결박(結縛)하고 가더니 되오 마즌가 시푸오
シバッテ 往タニ ヒドク タ、カレタサウニゴザル

<校訂/155> 結縛 결박(結縛)하여 가더니 되오 마즌가 보오
縛られて いったが ひどく なぐられたやうでございます。

위의 예를 보면, 사본류에서의 「きつう」나 「つよう」와 같은 古形の 형용사의 連用的 用法이 初刊本과 校訂本과 같은 刊本類에서 「ひどく」로 교체된 예이다. 그러나 刊本類라 하더라도 初刊本과 校訂本에서 동일하게 「ひどく」로 나타나는 예는 위의 1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初刊本에서의 이 「ひどく」가 校訂本에서 다른 일반적인 부사로 교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きつい」는 「きつう」의 형태로 『交隣須知』에서는 주로 부사적으로 사용된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3548]과 같이 <苗代川本>와 같은 古写本類에 「きつい」의 사용례가 보이니, 이것은 한국어 부사 ‘ㄹ장’의 対訳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非音便形인 「きつく」가 사용된 예는 初刊本에 1예가 보일 정도이다¹²⁾.

[3548]

<苗/三40b> 兵符 병부는 장슈개 ㄹ장 둥흔 거시올레
兵符ハ タイショフノ方ニ キツイ ヲモイ モノテゴサル

『交隣須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부사는 형용사 「よい」의 연용형인 「よふ(よう)·よく」이다. 우선 이 부사의 일반적인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¹³⁾.

*동사는 일반동사, ()는 용례수

	苗代川本	増補本類	初刊本	校訂本
よく	よく+동사(17)	よく+동사(68)	よく+동사(76)	よく+동사(81) よく+ござる(1) よく+ある(5) よく+ない(9)
よう	よふ+동사(34) よう+동사(30) よふ+ござる(68) よう+ござる(6) よふ+ある(2) よふ+ない(2)	よう+동사(167) よふ+ござる(1) よう+ござる(191) よう+ある(4) よう+ない(9)	よう+동사(12) よう+ござる(74) よう+ある(7)	よう+ござる(32)

다시 말해서, 古写本類인 <苗代川本>에는 「よふ」, 増補本類에는 「よう」와 「よく」, 初刊本과 校訂本の 刊本類에서는 「よく(旨く)」 형태가 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각 異本 간에 있어 사용 실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12) [3902]

- <ノ/二73a> 癢 マ려운 데를 밋오 글그면 중그러오니
カユイトコロヲ キツウ カケバ ヒリツク
<初/二52a> 癢 マ려운 데를 되우 글그면 시원히니라
カユイ 処ヲ キツク カケバ キミガヨーゴザル
<校訂/143> 癢 マ려운 데를 되오 굶으면 시원히니라
かゆい 処を 思ひきり 搔くのは いゝ氣持だ。

13) 初刊本에서의 「ヨ一」 표기도 「よう」에 각각 포함(+일반동사(3), +ござる(12), +ある(1)).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きみよい、こちよい」와 같은 복합어도 포함.

우선 「する」를 포함하는 일반동사 앞에 오는 非音便形「よく」는 <苗代川本>에서 校訂本으로 갈수록 그 사용례가 늘어나고, 일반동사 앞에 오는 音便形「よう(よふ)」는 刊本類로 갈수록 그 사용례가 줄어들다가 校訂本에서는 사용례가 제로가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동사 앞에 오는 非音便形은 「よう」에서 「よく」로 통일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音便形「よう」는 写本類에서 일반동사와 공손한 표현의 「ござる」앞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語形인데, 이것이 校訂本으로 갈수록 일반동사 앞에 오는 예는 줄어들고, 「ござる」앞에만 쓰이는 용법으로 고정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写本類와 初刊本에서 일반동사 및 보통체의 「ある」나 否定의 「ない」와 같은 다양한 표현형식에 사용되던 音便形 ウ가 校訂本에서 非音便形 ク로 교체되게 된다.

[2706]

- <苗/二60a> 漆 칠이 돛치 아니하니 부디 덩칠로 하여 주옵소
ヌリカ ヨフナイニヨリ カナラス ホンヌリニ シテクタサレイ
- <ソ/三21b> 漆 칠이 돛치 아니하니 부디 덩칠로 하여 주옵소
ウルシカ ヨウナイニヨリ 必ス シャウノウルシヲヌッテ下サレイ
- <初/三14b> 漆 칠이 돛치 아니하니 부디 도흔 칠노 하여 주옵소
漆ガ ヨウゴザラヌニヨリ 必 ヨイ 漆ヲ シテ下サレヨ
- <校訂/250> 漆 칠(漆)이 돛치 아니하니 부디 도흔 칠(漆)노 하여 주시오
漆が よくないから 是非 い、漆で塗って下さい。

한편 音便形「よう」는 보조동사 「ござる」앞에 와서 「ござる」와 함께 쓰임으로 공손한 표현을 나타내는 형식으로만 사용되게 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형용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1799]

- <苗/二01b> 翡翠 비취(翡翠)는 빛치 곱스외
ヒスイハ イロガ ウツクシウゴサル
- <ア/一69b> 翡翠 비취는 빛치 곱스외
ヒスイハ 色ガ 美ウコサル
- <初/一55a> 翡翠 비취는 빛치 곱스외
翡翠ハ 色ガ ウツクシウゴザル
- <校訂/079> 翡翠 비취(翡翠)는 빛치 곱스외다
翡翠は 色か 美しうございます。

특히 校訂本에서의 이와 같은 용법은 「ございます」앞에서만 형용사의 우音便形이 사용되고 있는 현대어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낸다¹⁴⁾. 단, 校訂本에서 다른 형용사가 모두 「ございます」앞에서 우音便形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313]

- <苗/二30b> 大柑子 대감즈는 서리를 맞춰야 빗치 곱스외
クネンホハ シモヲウケテコソ イロガ ヲツクシフコサル
- <ソ/二32b> 大柑子 대감즈는 서리를 마자야[여] 빗치 곱스오니
クネンボハ 霜ヲ逢テコソ 色ガ ウツクシウゴサル
- <初/二23b> 大柑子 대감즈(大柑子)는 서리를 마자야 빗치 곱스외
クネンボハ 霜ニアフテコソ 色ガ ウツクシウゴザル
- <校訂/055> 柑子 감즈(柑子)는 서리를 마자야 빗치 곱스외다
蜜柑は 霜があたらないと色が美しくございませぬ。

「ございます」앞에서 音便形 「うつくしう」가 아니라 非音便形 「うつくしく」로 사용된 예이다. 이와 같은 예가 5,6예 보인다. 写本類와는 달리 표준적인 ㄱ형의 표출을 의도한 校訂本の 편집성향으로, 현대어로의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 形容動詞의 連用法

대표적인 예로 「ほんとに」가 있다.

[4201]

- <苗/四13b> 正 정 그러홀세면 틈을 어더 보오리
タシカニ サヤウナイキヲヒナラハ ヒマヲモトネテミマセフ
- <小/四16a> 正 덩 그러홀지연정 다시 틈을 어더 보오리
タシカニ サウシタギデゴサラバ 重テ スキヲ求テ見マセウ
- <初/四16a> 正 정(正) 그러허면 틈을 어더 보오리라
マサニ サヤウナギナラバ ヒマヲエテ見マセウ

14) 「て」에 접속할 때의 우音便形 현상도 대략 위 표의 일반동사가 後接하는 경우와 비례한다. 즉, <苗代川本>에서는 -くて形보다는 -ふて와 -うて形, 増補本類에서는 -うて形이 많고, 初刊本에서는 非音便形의 -くて形이 많다가 校訂本에서는 모두 -くて形만 사용되고 있다. 가령 형용사 「ちいさい」의 예를 들면, <苗代川本>에서의 非音便形은 모두 8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6예가 「ない」의 활용형인 「ナクテ」이다. 이 「ない」가 増補本類에서는 상대적으로 「ナクテ」의 非音便形(35예)이 音便形(14예)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初刊本에 와서는 チイサクテ>チイサウテ로 非音便形과 音便形이 역전된다. 初刊本에서는 非音便形 35예 중 音便形은 7예에 불과하며, 「ない」의 音便形은 없고 모두 「ナクテ」이다. 이러한 경향이 校訂本에서는 音便形은 없고 -くて와 같은 非音便形으로 통일되게 된다.

<校訂/318> 正 정(正) 그러하면 틈을 어더 보오리다
 ほんとうに そうなら 折を見てみましょう。

校訂本에서 「ほんとう」의 축약형인 「ほんと」에 「に」가 붙어 부사로, 「の」가 붙어 連體的으로 사용된 예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ほんと」를 語幹으로 하는 「ほんとうに」는 새롭게 사용된 부사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밖에 다른 형용동사의 예로 「非常に, 不思議に, 奇麗に」 등을 들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현대어와 동일한 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724]

<苗/-55a> 胆 성이 하 나니 담(胆)이 썰리옵니
 ハラガキツフタッテ キモガニエマスル

<ア/-62b> 胆 성이 하 나니 담이 썰리고니
 ハラガアマリタ(ッ)テ キモガ フルイマスル

<初/-49b> 胆 분(憤)이 하 나니 담이 썰니는구나
 腹ガアマリ立テ 胆ガ フルフ

<校訂/118> 胆 분(憤)이 하 나니 담(胆)이 썰니는구나
 非常に腹が立ッテ 胆が ふるへる。

이러한 것들도 정도부사의 주변적·과도기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たいへん」도 실은 「たいへんだ」라고 하는 형용동사에서 전성된 것이고, 「たいそう」 또한 명사적 용법에서 부사로 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いこう」도 본래 「いかし」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전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日本語의 副詞는 体言이나 用言의 특정한 語形으로부터 이행해 온 것이 많다고 할 때, 특히 용언과 관련해서는 連用修飾의 형태가 독자적으로 부사화한 것에서부터, 그 용언의 다른 활용형이 없어진 결과 고립되어 부사로 편입된 어휘 등, 副詞化의 과정과 정도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이 校訂本에 잘 나타나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일본어 부사는 통시적으로 정도부사를 중심으로 의미의 분화 과정을 거쳐서 현대어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交隣須知』를 통해서 그러한 부사의 의미 분화가 明治時期에서의 漢字語의 활성화에 힘입어 다른 품사, 특히 用言으로부터의 転成副詞, 혹은 副詞化 過程에 있는 부사어들이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할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校訂本에서는 기존의 일부 형

용사의 連用法을 당시의 일반적인 부사어 형태나 부사적 표현으로 적극 교체하여 당시의 언어현실을 반영하려는 편집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동시에 【자료】로 제시된 『交隣須知』의 異本 間 副詞語의 표출 현황은, 일본어 부사의 통시적 연구자료 뿐만이 아니라 個別語의 語史를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成玟珂(2010) 「明治期朝鮮語會話書における程度副詞の使用状況と推移」 『日本言語文化』 17, pp.61-76, 日本言語文化学会
- 趙 宏(2003) 「明治20年代の速記資料における程度副詞の文体的特徴をめぐって」 『学芸国語国文学』 35, pp.1-10, 東京学芸大学国語国文学会
- 片茂鎮(2010) 「『交隣須知』筆写本과 刊行本の 일본어 어휘 비교」 『일본문화학보』 45, pp.47-66, 한국일본문화학회
- _____ (2011) 「『交隣須知』筆写本과 刊行本の 한국어 어휘 비교」 『일본문화학보』 49, pp.119-134
- _____ (2012) 「刊本類『交隣須知』에 의한 한일 근대어의 통시적 연구」 『일본문화학보』 55, pp.95-116
- _____ (2013) 「근대 한일어 대역자료『交隣須知』를 통한 한일 양국어의 통시적 연구(1)—한국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58, pp.99-122
- 坂梨隆三(1982) 「近代の文法Ⅱ(上方語)」 『講座国語史4 文法史』 大修館書店, pp.467-536
- 徳田政信(1983) 「三矢文法説の構造と特色」 『近代文法図説』 明治書院
- 浜田敦(1970) 「副詞など」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岩波書店, pp.207-227)
- _____ (1991) 「中世の文法」 『日本文法講座3 文法史』 明治書院
- 増井典生(1988) 「江戸語における形容詞「いかい」とその衰退について」 『国語学研究』 28, pp.41-49, 東北大学文学部
- 松井栄一(1977) 「近代口語文における程度副詞の成長」 『松村明還暦記念国語学と国語史』 pp.737-758, 明治書院
- 安田章(1973) 「重刊改修捷解新語解題」 『三本対照捷解新語(釈文・索引・解題篇)』 京都大学国文学会, pp.275-337
- 湯沢幸吉郎(1936) 「副詞」 『徳川時代言語の研究』 刀江書院, pp.227-242
- _____ (1957) 「副詞」 『増訂 江戸言葉の研究』 pp.315-334

【자료】 『交隣須知』의 副詞

* ○ 안의 숫자는 용례수

No	한국어 대역	苗代川本	古写本類	増補本類	初刊本	校訂本
1	하, 너 모, 딕이,딕오, 심히(이), 마장,만히, 무한히(이) 부지기수 (1), 마득	アマリ⑭	アマリ②	アマリ(ニ) ③	アマリ⑩	あんまり④ あまり② 餘り① 大へん① ひどく① どうも①
		コトノホカ ①	殊ノ外① イカウ①	アマリ③	余り①	ひどく①
		イコウ⑧ イカウ⑥	キツウ④ イカウ② イコウ① タント①	イカウ(55) ツヨウ② 甚ダ② イコウ① キツウ①	イカウ⑩ 澤山ニ① オビタ、シ ウ① 甚ダ① ヒドク① キツウ① 最モ①	大へん④ 大そう(層)③ ひどく① 甚だ① 大めん① どこまでも①
		ヨケイニ⑩	ヨケイニ⑤ タント③ 餘慶ニ① ツヤウ①	ヨケイニ⑩ タント⑦ カギリノウ ②	ヨケイニ④ タント③ 無限① 餘計ニ① 多ク①	澤山(に)⑥ 雲の如く①
		タント⑦	タント⑧	タント⑧ ヨケイニ② スギテ② アマリ②	タント④ ヨケイニ② タクサンニ ①	澤山(に)⑥ ひどく①
		イタッテ①		イカウ② 이코우①	이카우①	大へん①
		大ニ①		キツウ② 이카우①	히도쿠①	大へん①
		2	바로,즉시, 즉제,겨럭, 멋췌	サッソク⑤	サッソク⑤	早速⑦ サッソク⑤
ヂキニ① ジキニ①	ヂキニ① サッソク①			ジキニ⑥	ジキニ②	すぐに① 其儘 ①
スグニ①	スグニ① サッソク①			早速②	早速①	すぐ①
ツイ①				ツイ④	ツイ①	直ぐ①
3	형혀,일정, 응당,반디 시	キワメテ⑤	キワメテ②	キワメテ⑩ キット③	キワメテ⑤ キット①	屹度① きっと① つまりは①

		ヒツチャウ ③	ヒツチャウ ① 必定①	ヒツジャウ ⑥ キワメテ④ 必定①	必③ 必竟①	蛇度① 屹度① い、鹽梅に①
		ヒョット①		必定③	極メテ①	
4	브덕	カナラズ⑥ 必①	必(ズ)② カナラズ①	必(ズ)⑬	必⑥	是非② 必ず①
		ゼヒ①	ゼヒ①	ゼヒ①	必①	
5	즈료,즈조, 갓곰	ヒタスラ④	ヒタスラ③ 折々①	ヒタスラ③ フリフリ③ セツセツ③ ヒタト②	ヒタスラ② フリフリ① ヒタト②	絶へず① 始終①
		フリフリ①	フリフリ①	ヒタスラ③ フリフリ①	ヒタスラ①	たびたび①
		セツセツ①	セツセツ②	ヒタスラ② ヒタト①	ヒタスラ①	
		ヒタト①	ヒタト①	フリフリ③ ヒタト①	ヒタスラ①	始終①
6	맞치,막, 마치	チョウド③ チャウド② テウド①	チョウド③ 丁度② テウド①	丁度⑬ チャウド④	丁度④ テウド① 第一①	丁度③ 一番①
7	더욱	イヨイヨ④	イヨイヨ①	ナヲモ③ イヨイヨ① ナヲマタ①	イヨイヨ③ ナホ①	なほ(も)② いよいよ① 一入①
		ナヲ②	ナヲ② タント①	ナヲ③ ナヲナヲ③	ナホ① ナホナホ①	
8	아모리, 과연	イカニ②	イカニ①	イカニ⑦	イカニ②	どんなに①
		イカニモ②	イカニ(モ) ② ドノヨウナ ①	イカニ(モ) ④	眞ニ① イカニ①	實に① どんな①
		イカヨウ①	イカニ① イカホド①	イカニ③	イカニ①	どれほど①
9	절로,즈연, 즈연히(이)	シゼント⑤	シゼント④ 自然ト①	シゼント⑩	自然ト③ シゼント①	自然に② 自然と②
10	블서,일즉	トク④ トクヨ리①	トク③	トク⑬ 早く② ハヤク①	トク④ カツテ①	もう③ 疾くに①
11	그저,다만, 오직,흔갓	タダ④		タダ⑬ ソノママ (ニ)②	タダ② ソノママ① ヒトヘニ①	ただ②
12	덕계,적적, 저기	チット① チットヅツ ②	チットヅツ ④	スクナウ③ チトヅツ③	スクナウ① チットヅツ ①	少く① 少しづつ①

					少シヅツ①	
		チト①		チト①	チト①	
13	혹	モシ(ハ)④	モシ①	モシ(ハ)⑮	或シ(ハ)③ モシハ	どうかすると② もしや①
14	도로혀	ケック①		却テ② ケック①	カヘッテ①	反って①
		カエッテ②	カヘッテ①	カエッテ② 却テ② ケック①	カヘッテ②	反って②
15	천천히(이) 찬찬히	ジワジワ①	ジワジワ① ソロソロ①	ソロソロ②	ソロソロ①	そろそろ①
		ソロソロ②	ソロソロ③	ソロソロ③	ソロソロ②	そろそろ②
16	출하로, 출하리	イッソ②		イッソ⑥	イッソ① ムシロ①	いっそのこと① たとへ①
17	미리	カネテ②	カネテ②	カネテ⑤	カネテ① 兼テ①	兼て②
18	오죽	サゾ① サゾカシ①	サゾカシ①	サゾ④ サゾカシ①	サゾ②	嘸草① まことに①
19	긋터여, 긋터나	サノミ②		サノミ⑥	サノミ②	何にも① 立ち入って①
20	잠간	ザンジ②	チョット②	チョト④ ザンジ②	チョト②	鳥ッ渡②
21	즈뭇, 족히	スコブル②	スコブル①	スコブル⑤	スコブル②	少し① 樂に①
22	마만히(이)	ソロリト②	ソロリト②	シヅカニ⑤	ジット① シヅカニ①	そっと① 靜に①
23	즈시, 즈서히, 즈히, 낫낫치	トクト②	トクト①	委(ウ)② トクト② 一々② イチイチ①	トクト① クワシク①	はっきり① よく①
24	쯔로, 별로	ベツニ①		ベツニ①	ベツニ①	別に①
		カエッテ①	ベッシテ①	ベッシテ①	別シテ①	格別に①
25	아직	マアダ① 마다①		마다④	마다②	まだ②
26	훈부로, 훈부러	ミダリニ①		ミダリニ② メッタニ①	ミダリニ①	
		메ッタ니①		메ッタ니③	메ッタ니①	やたらに①
27	계요, 계요, 겨오	ヨウヤク②	ヤウヤウニ①	ヤウヤク⑤ ヤウヤウニ①	ヤウヤウ① ワヅカニ①	もう①
28	속결업시	イタヅラニ①		イタヅラニ③ センカタナサニ①	ムダニ①	つまらぬことに①

29	흐믓며	イワンヤ①		イワンヤ④	況ヤ①	まして①
30	각각	オノオノ①	各々①	ヲノヲノ①	各々	それぞれ①
31	거의	ヲヲカタ①		ステニ② 既ニ① ヲヲカタ①	ホトンド①	もちよっとで①
32	마춤	ヲリフシ①		ツイニ③ ヲリフシ①	ツイニ①	
33	둘러	クルリト①	クルリト①	クルリト④	クルリト①	ぐるっと①
34	감히	ケッシテ①	敢テ① アエテ①	敢テ② アエテ①	敢テ①	
35	몰속	コトゴトク ①		ノコラズ③	ノコラズ①	のこらず①
36	쾌히	サッパリト ①		サッパリト ④	サッパリト ①	心よく①
37	그대지	サホドニ①		サホドニ④	サホドニ①	そんなに①
38	이미	ステニ①		ステニ③ 既ニ①	己ニ①	もう①
39	실로	ジツニ①		ジツニ①	實ニ①	ほんとの①
40	극열	シゴク①		シゴク②	極ク①	極暑①*
41	약간	スコシ①		少シ①	少シ②	いくらか①
42	মনদ্দ	タチマチ①		タチマチ①	タチマチ①	いつのまにか①
43	덤덤히(이)	チョイチョ イ①	チョイチョ イ①	チョイチョ イ④	チョイチョ イ①	ずたずたに①
44	오오라히 (이)	チラチラト ①		チラチラト ④	遠ク①	かすかに①
45	헝가지로	トモニ①		トモトモニ ② トモニ① ドウゼンニ ①	共ニ①	一緒に①
46	어이	ナント①	ナニト①	ナニト①	ドーシテ①	
47	되도록	ナルダケ①	ナルダケ①	ナルダケ④	ナルダケ①	出来る様に①
48	비로소	ハジメテ①	ハジメテ①	ハジメテ④	ハジメテ①	始めて①
49	오히려	マダモ①		マダモ④	ナホモ①	まだ①
50	만일	マンイチ①		マンイチ③ 萬一①	萬一①	萬一①
51	그저	ヤハリ①		ヤハリ①	ソノママ①	其儘にして①
52	블과	ワヅカ①		ワヅカ② ワヅカ①	ワヅカ①	
53	부러	ワザト①		ワザワザ②	ワザワザ①	わざわざ①
54	빅야호로	モッバラ①		モッバラ② モッバラ②	モッバラ①	今丁度①

要 旨

日本語の副詞は、通時的に見て、程度副詞を中心に意味の分化過程を経て現代語にいたるものと思われるが、『交隣須知』を通して、そのような副詞の意味分化が明治時期において漢字語の活性化に伴い、とくに副詞化による用言からの転成副詞、もしくはその過程にあるとも言える副詞語がその役割を担ってきた過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なお校訂本では、それまでの形容詞の連用法を当時の一般的な副詞語、または副詞的な表現などに積極交代して当時の言語現実を反映しようとする編集意図をもうかがい知ることができた。同時に〈資料〉として提示した、『交隣須知』における日本語副詞の表出状況はその通時的研究のためにも、また個別語の語史を研究する上でも有効な情報を提供するもの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交隣須知, 日本語副詞, 転成副詞, 校訂本, 副詞化, 通時的研究

투 고 : 2014. 2. 28
1차 심사 : 2014. 3. 15
2차 심사 : 2014. 4. 5